

탐사기획

인도와 차도 구분 없는 서울캠, 교통사고 날까 ‘조마조마’

이다빈 기자 davin311@khu.ac.kr
배지현 기자 flejtjsdp@khu.ac.kr

【서울】 서울캠퍼스(서울캠)에는 교내로 진입하는 차량과 보행자가 섞여 위험한 순간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한국 소비자원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대학 내 교통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대학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394건, 연평균 약 131건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11년 11월 고려대에서 길을 가던 학생이 셔틀버스에 치여 숨진 사건이 발생했고, 2018년 3월에는 이화여대에서 길 맞은편으로 건너가던 신입생이 정차한 버스를 추월하려던 차량에 부딪혀 의식을 잃은 사고가 일어났다.

우리학교도 안전 구역은 아니다. 졸업생 A씨는 지난 2012년 청운관에서 정경대학으로 가던 중 횡단보도에서 뒤따라오던 자동차 사이드 미러에 왼쪽 팔꿈치를 부딪혀 한 달 동안 치료를 받았다. A씨는 “크게 다친 것은 아니었지만 인도와 차도가 불명확한 도로에서 차량과 학생들이 뒤섞여 사고가 날 뻔 했던 적이 많았다”며 “실제로 사고가 나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그 후 6년이 지난 지금의 캠퍼스 교통 환경 또한 그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

가장 큰 문제는 여전히 부족한 차도와 인도의 명확한 구분이다. 정경대학에서 전공수업을 듣는 이동준(언론정보학 2018) 씨는 “횡단보도를 올라가는 부근에서 차량과 부딪힐까봐 걱정된다”며 “특히 정경대학 앞은 학생과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인데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보니 매우 위험하다”라고 불편을 토로했다.

현재 서울캠에 인도와 차도가 명확히 구분된 길은 정문-청운관, 횡단보도, 신축단과대학동 앞, 교시탐-미술대학뿐이다. 학교는 2015년 청운관 앞 보도, 2016년 네오르네상스관 앞 보도를 확장해 보행자 안전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작년에는 교시탐 사거리에서 경희초등학교, 미술대학까지 이어지는 도로에 인도를 설치했다. 하지만 횡단보도 위 잘살기탐에서 구 한의대 건물로 가는 길, 신축단과대학동에서 무용대와 주차장으로 가는 내리막길 등 여전히 차도와 인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길도 있다. 특히 많은 재학생에 비해 도로가 좁은 정경대는 학생들과 차량의 충돌 위험이 가장 크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5조 2항은 1차선의 너비를 3m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정경대 앞 도로의 폭은 약 6.3미터였다. 차량이 교행하며 사



① 정경대 앞 도로는 차량이 교행하면 여유가 없을 정도로 좁다.
② 눈송고사처럼 인파가 모이는 날이면 차량과 행인이 뒤섞여 통행하는 모습이 연출된다. 사진은 지난해 눈송고사날이다.
③ 연세대는 백양로 재창조 프로젝트를 통해 지상에서 차를 없앴다.
④ 주차공간 부족으로 길가에 주차된 차량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람까지 통행하면 여유 공간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총무관리처 총무팀 이희포 팀장은 “잘살기탐에서 구 한의대 건물로 가는 길의 특성상 도로가 좁기 때문에 보도블록으로 명확히 차도를 분리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교내에 차량 통행에 대한 별도의 표지판이 없는 것도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고 있다. 한 주차요원은 “정문에 경희의료원과 학교 진입로를 안내하는 표지판이 없어 병원으로 갈 차량이 교내로 들어와 교내 교통이 복잡해지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더욱이 차선표시와 속도제한 안내 등도 부족해 차량과 통행하는 학생들과의 충돌이 우려된다.

정승원(정치외교학 2017) 씨는 “콕이나 배달을 하는 오토바이들이 교내임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달려오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나 학생들이 한꺼번에 이동하는 점심시간과 수업이 끝난 시간에는 차량과 보행자간의 거리가 매우 가까운데 빨리 지나가는 차량에 깜짝 놀랄 때가 많다”고

말했다.

총무팀 이 팀장은 “교내 도로에 제한속도 표시가 많이 없고 차선이 명확치 않은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며 “올해 내로 차선 도색, 제한 속도 표시 등의 작업을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유동인구와 차량의 이용이 많아지는 날이면 혼잡은 더욱 가중된다. 야간 대학원 수업, 대형 행사가 있는 날에는 교내 곳곳에 많은 차량이 들어오지만 주차공간이 충분하지 않아 이중주차가 자주 발생한다. 총무팀 이 팀장은 “구성원에게는 차량 요일제를 시행하고, 방문객들한테 최대한 주차 안내와 후문으로의 출차를 유도하지만 협조를 안 해줘 답답한 심정이다”라며 “푸른솔 지하주차장에는 공간이 있지만 멀어서 싫다고 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차량 안내에 대한 어려움을 전했다.

총무팀은 캠퍼스 내 교통량을 조절하기 위해 차량 요일제를 시행중이다. 위반하는 차량은 출입구 게이트에서 자동으로 체크하고 학기에 3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다음 학기 정기관 신청 자격을 박탈하는 삼진 아

웃제도도 실시중이다.

연세대는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캠퍼스에서 차를 없앴다. 연세대는 ‘백양로 재창조 프로젝트’를 통해 백양로삼거리에서 정문까지의 길인 ‘백양로’에 지하주차장을 만들고 지상에는 녹지의 보행로를 조성했다. 완벽한 보차분리를 통해 보행자의 안전 확보는 물론 낙후된 조경과 경관까지 개선했다.

연세대 재학생 오창록 씨는 “백양로 재창조 프로젝트 이후 차량들이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다 보니 학내 차량 통행이 적어 안전성이 보장 된다”라며 “녹지공간이다 보니 봄에 벚꽃도 피는 등 외관상으로 보기도 좋다”고 밝혔다.

현실적으로 대규모 공사가 어려운 서울캠의 현실에서, 보행자의 노력 또한 필요하다. 스마트폰 보거나 이어폰을 낀 채 교통안전을 제대로 살피지 않는 보행자의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익명의 주차요원은 “교내에서는 경적을 못 울리게 하는데 이어폰을 끼고 걸어 다니는 학생들이 차가 오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있어 갈등이 생긴

다”라며 보행자와 차량 간의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운전자 신모 씨는 “따로 신호체계가 잡혀 있는 게 아니라 서로 눈치 보면서 통행한다”며 “교내에서 최대한 조심해서 운전하려고 노력했지만 보행자가 갑자기 튀어나오거나 앞을 막아 놀란 적이 많았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보행자는 차가 당연히 비켜주거나 멈춰주겠지 하는 생각으로 다닌다”라고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대학 내 이동로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일반도로에 포함되지 않아 사유지로 지정돼 학교가 자율적으로 단속과 관리를 담당해야 한다. 그렇다보니 일반도로와 달리 도로교통안전 시설 설치에 대한 의무가 없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도 어렵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 학내 도로에선 사고가 일어나도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가 아니기에 운전자 과실이 명백해도 형사처분이 쉽지 않고 사고처리가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운전자의 경각심을 유도하기도 어렵다. 캠퍼스 내 안전을 위해 보행자의 노력 또한 필요한 이유다.

2019년도 국제캠퍼스 대학직장예비군 기본훈련 안내

■ 개요

- 훈련대상 : 국제캠퍼스 대학직장예비군에 편성된 예비군 자원 중 1~6년차 예비군 전원
- 훈련장소 : 용인예비군훈련장(용인시 처인구 운학동 목동로 87 / 네비게이션 : 바른고기 검색)
- 훈련일시 : 대학(학과)별 훈련 일정

훈련일자	훈련 대상 학과	시간
4월 8일(월)	• 전자정보대학 • 특수대학원(교육, 아트·퓨전, 테크노경영)	09:00~18:00
4월 9일(화)	• 공과대학 : 건축공학, 건축학, 정보전자신소재공학, 사회기반시스템공학, 화학공학	
4월 10일(수)	• 공과대학 : 산업경영공학, 환경학 및 환경공학	
4월 12일(금)	• 공과대학 : 기계공학, 원자력공학	
5월 2일(목)	• 동서의학과와 • 생명과학대학 • 외국어대학 • 전문대학원(동서의학, 국제, 체육)	
5월 3일(금)	• 국제대학 • 응용과학대학 • 소프트웨어융합대학	
5월 7일(화)	• 교직원 • 일반대학원 • 예술 · 디자인대학	

■ 준비물

- 예비군 복장(전투복, 전투모, 전투화, 요대, 고무링)을 규정대로 착용할 것(미 착용시 입소 불가)
※ 전투복, 전투화 사이즈가 작은 경우에는 휴대하고 참석한 경우만 현지 대여 가능하다
- 신분증(학생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미 지참자는 입소불가

■ 교통 안내

- 학교 지원차량 : 학교정문 출발(7:50분)
※ 강남역 지원차량 없음
- 개인 입소자는 학교홈페이지 훈련안내문에 공지된 훈련장 약도를 참고하여 09:00 이전까지 훈련장 위병소에 도착



-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운학동 목동로 87
(구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운학동 산 64번지)
- 네비게이션 : 바른고기(용인시 처인구 운학동)
- 대중교통편

서울-용인(광역버스)	수원/신갈-용인(시내버스)
5001,5001-1,5002 : 강남, 양재-용인터미널 5600 : 강남 - 잠실 - 용인터미널 5005 : 광화문 - 용인터미널	66 : 수원-용인 66-4 : 수원-용인 10, 10-5 : 수원-용인

■ 유의 사항

- 훈련일자 변경은 불가하며 개인적인 사정으로 학교 훈련 일에 참가가 어려운 학생은 예비군홈페이지 (<http://www.yebigun1.mil.kr/>)에서 휴일 또는 전국단위 훈련을 신청 · 참가하여 훈련이수 가능
- 대상자 명부는 학과 사무실이나 학교 홈페이지 일반 공지사항에서 확인 요망(훈련 2주전 공지)
- 훈련 입소 시 음주측정을 실시하여 음주자는 입소가 불가하니 훈련 전 음주행위 자제
- 입소통제 지침 : 09:00이후 지연 도착자는 입소불가하며, 훈련은 무단불참 처리됨
- 교통비(7,000원) 지급방법 변경 : 현금 → 계좌이체로 변경(본인명의의 계좌만 가능함)
※ 예비군홈페이지에 등록된 계좌번호로 지급되오니 희망하는 계좌 또는 휴면 계좌는 수정하시기 바람
- 학적변동(휴학, 졸업 / 수료 등)으로 재학 중이 아닌 학생예비군은 훈련참석 불가
- 기타 훈련에 의문 사항이 있을시 예비군 연대본부(전화 031-201-3265-9)에 문의하기 바람